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내용의 적합성 분석

-교사의 국악내용 이해 실태를 중심으로-

김 희 숙*

본 연구는 국악내용에 대한 교사의 이해 실태를 분석하여, 국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및 교사 연수 등의 교육 처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악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말불임새와 메기고 받기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아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과 '시김새'의 이해는 교사의 실기능력이 부족하여 가르치기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배'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국악내용 이해가 부족한 개념은 교수·학습 지도 방법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추상적이며 어렵게 제시되고 있는 국악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겠다.

※ 주제어 :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내용, 적합성 분석

차 례

I. 서 론

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대상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

III. 교사의 국악내용 이해 실태

- | | |
|--------|----------------|
| 1. 장단 | 2. 말불임새 |
| 3. 시김새 | 4. 메기고 받는 소리 |
| 5. 한배 | 6. 국악교육을 위한 제안 |

IV. 결 론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연구사

I. 서론

교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도할 수 없는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면, 그 내용은 학습 가능성이 낮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난이도가 높은 내용일 것이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악 내용의 경우 난이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이영미, 2012; 이애선 2009) 이는 타당성, 중요성, 흥미, 학습 가능성, 사회적 실재와의 일치성, 유용성 등으로 제시되는 교육내용 선정 준거(Print, 1988; Brady, 1992) 중에서 흥미나 학습 가능성의 준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며, 황규호(2004)가 교육내용의 적합성 분석 준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지 수준의 적절성이나, 김희숙(2009)이 제시하고 있는 실행가능성 준거에도 적합성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교사 요인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훌륭한 교육과정과 학습자, 그리고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공감하는 영역이다.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하여 Fullan(M. Fullan, 2001)은 교육과정이 교육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중심에 교사를 두고, 변화주도자(change agent)로서의 교사를 강조한 바 있으며, 김의석(1993), 엄우용·김경철(2006), 김성연·한기순(2011) 등의 연구에서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교사 요인을 다루고 있어 교육이 구현되는 교육과정 실행의 중심에 교사가 있으며, 교육적 효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된 국악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국악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이나 실기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 실태 반영 없이 교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구성되었다면, 그 내용은 학습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과정 이해 수준 및 지도 능력 수준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크게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년군별 성취 기준과 음악요소 및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학년군별 성취 기준의 내용에는 국악 내용이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음악 요소 및 개념에는 서양 음악과 국악 내용이 통합되거나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단, 장단꼴, 말붙임새 등과 같은 요소는 양자가 독립적으로 제시된 형태이며, 소리의 어울림, 음색 등은 통합되어 제시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내용이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되기에 적합한 내용인가에 대한 적합성 분석이 필요한데, 특히 그 내용이 교사의 이해 수준으로 미루어볼 때 실행 가능한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현재 국악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 하는데, 교사나 학습자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일 때, 그 내용은 학습 가능성이 낮은 교육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악 교육의 정상적인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양음악과 통합되어 제시된 개념보다는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 수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국악의 특성이 반영된 독립 개념들의 경우 국악의 개념은 물론, 지도 방법도 통합된 개념과 차별화 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국악교육을 위해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해 수준 및 지도 능력의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내용을 교사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방법과 실기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악교육의 학습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 중에서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악 개념만을 대상으로 교사의 이해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및 교사 연수 등의 교육적 처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나아가 국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시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악교육과 관련된 세 그룹의 전문가 집단을 설정한 후 심층 인터뷰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FGI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A그룹은 대

학이나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국악반 지도 등의 국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B그룹은 국악이 아닌 서양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학교에서 합창반이나 관현악반 지도 등의 음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C그룹은 학이나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며 학교에서 음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초등 학교에서 음악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교과전담교사나 학급 담임으로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구성하였다.

교육경력은 A그룹이 19.4, B그룹이 14.6, C그룹은 15.6 년으로 A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C와 B그룹 순으로 경력이 많았다. 심층 인터뷰 대상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의 특성

집단	구분	전공 및 주요 활동	교직경력	
			경력	평균
A	A-1	국악교육 전공 및 대금 연주자	25	19.4
	A-2	국악교육 전공 및 국악관현악단 지도	19	
	A-3	국악관현악단 지도	15	
	A-4	학교의 국악관련 업무 담당	18	
	A-5	국악반 운영 및 국악 활동 다수	20	
B	B-1	음악 교육 전공 및 작곡활동 다수	17	14.6
	B-2	음악교육 전공 및 합창단 지도	12	
	B-3	관현악단 지도	16	
	B-4	음악과 수업 전문가	15	
	B-5	음악교육 전공	13	
C	C-1	음악 교과 담당 교사	16	15.6
	C-2	음악 교과 담당 교사	16	
	C-3	학반 음악 지도 교사	12	
	C-4	학반 음악 지도 교사	16	
	C-5	학반 음악 지도 교사	18	

2.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에 FGI 질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제공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이 질문을 토대로 심층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FGI 질문지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 개념 중에서 국악관련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한 교사의 국악지식, 국악실기 능력, 국악지도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국악 개념은 장단, 말붙임새, 시김새, 메기고 받는 소리, 한배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장단관련 심층 질문은 세마치장단, 자진모리장단, 장단의 세, 장단꼴에 대한 이해, 실기 능력, 지도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말붙임새는 그 개념과 지도 능력의 수준, 시김새는 떠는 소리와 흘러내리는 소리, 그리고 꺾는 소리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메기고 받는 소리와 한배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질문은 심층인터뷰 기법으로 진술 내용을 얻어 내고 1차적으로 전사를 한 다음, 주요 진술 내용을 추출하여 목록화하였고, 이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FGI 질문지 내용

질문 내용	국악 개념
선생님의 국악에 대한 국악지식, 국악실기, 국악지도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국악개념 지도 가능 정도는?	세마치장단/자진모리장단장단의 세/장단꼴
	말붙임새
	시김새(떠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꺾는 소리)
	메기고 받는 소리
	한배
학습자의 흥미, 수준, 발달 단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내용의 학습가능 정도는?	‘세마치장단/자진모리장단/장단의 세/장단꼴’과 관련된 교과서 학습 내용
	‘말붙임새’와 관련된 학습 내용
	‘시김새(떠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꺾는 소리)’와 관련된 학습 내용
	‘메기고 받는 소리’와 관련된 교과서 학습 내용
	‘한배’와 관련된 교과서 학습 내용

Ⅲ. 교사의 국악내용 이해 실태

1. 장단

장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 A그룹은 대체로 장단꼴이나 장단의 세를 포함한 장단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기 능력 및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잘 지도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실기 능력과 정확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장단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도 있었다. B그룹의 답변 분석 결과 B그룹은 장단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

롭과 장단꼴과 장단 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체로 세마치장단, 자진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의 장단은 연주할 수 있으나, 이 세 장단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단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으나, 장단에 대하여 학생들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C그룹은 장구를 자연스럽게 연주하거나 흥을 돋우며 장단을 지도하는 것은 자신이 없으나 교과서에 제시된 장단이나 간단한 장단, 장단의 세와 장단꼴은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B, C그룹에 비하여 A그룹은 장단에 대한 국악지식, 국악실기, 국악지도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국악지도에 대한 자신감도 갖추고 있었다. B그룹은 C그룹보다 국악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더 많았으며, 특히 실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었다. C그룹은 국악교육을 위한 국악지식이나 실기능력 등의 능력은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으나 국악 교육을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들은 장단의 세, 장단꼴과 같은 개념 이해도 중요하나 교사의 실기 능력이 부족해서 장단을 잘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장단 지도를 위해서는 개념 이해와 더불어 장단 연주 기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3> 장단 이해 수준

구 분		답 변
A	A-1	여러 가지 장단과 장단꼴, 장단의 세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연주
	A-2	장단의 특징과 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를 능숙하게 치며 바르게 지도 가능
	A-3	여러 가지 장단과 장단의 세를 이해하고 있으나 실기 능력 부족하여 다소 자신이 없음
	A-4	장단의 유형을 잘 알고 능숙하게 연주하며 장단 지도를 하고 있으나 장단꼴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짐
	A-5	장단 이해 및 실기 능력 있어서 지도 용이
B	B-1	장단 이해는 하고 있으나 실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도
	B-2	장단마다 지닌 장단의 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실기가 부족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많음
	B-3	장단을 이해하고 지도 내용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B-4	장단꼴과 장단의 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
	B-5	장단에 대한 이해는 잘 하고 있으나, 장구 연주 능력이 부족하여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
C	C-1	간단하게 장단을 치며 지도할 수 있음
	C-2	교과서에 제시된 세마치장단이나 자진모리장단은 잘 지도 하고 있음
	C-3	장단을 구름으로 읽고 장구로 쳐 줄 수 있으나, 악곡에 맞게 자연스럽게 연주하지 못함
	C-4	흥을 돋우며 장구를 치는 것은 부족하지만, 장단을 지도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음
	C-5	장단의 세와 장단꼴을 익혀 어느 정도 지도할 수는 있으나 능숙하지는 못함

2. 말붙임새

A그룹은 말붙임새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가창 및 창작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붙임새의 개념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B그룹은 대부분 말붙임새의 개념 이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말붙임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와 닿지 않으며, 어떠한 학습 상황에서 지도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말붙임새를 사용한 학습 상황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한 경험이 적어서 지도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는 말 붙임새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구체적인 학습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C그룹의 경우 지도법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말붙임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과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말붙임새를 음의 높낮이와 관련시키는 교사도 있었으며, 노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여서 말붙임새의 개념이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A그룹은 대체로 말붙임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지도 전략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지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와 C그룹은 말붙임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지도를 하며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말붙임새 이해 수준

구 분		답 변
A	A-1	말붙임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잘 지도함
	A-2	소박과 정간보를 이용하여 말붙임새를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음
	A-3	말붙임새의 의미가 다소 생소하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지도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
	A-4	말붙임새의 의미를 이해하며 특히 창작활동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음.
	A-5	말붙임새를 가창 지도시 많이 활용하고 있음
B	B-1	말붙임새를 사용한 경험이 적어 자연스럽게 지도가 안되어 가끔 지도함
	B-2	말붙임새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여 지도 경험도 적음
	B-3	지도법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B-4	말붙임새를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하고 있으나,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지, 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음
	B-5	말붙임새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수업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움

구 분		답 변
C	C-1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도하지 못함
	C-2	음의 높낮이를 살려 말볼임새를 표현하는 것은 지도하는데 어렵게 느껴짐
	C-3	말볼임새의 기본 원리는 이해하고 있으나 지도는 자신이 없음
	C-4	지도법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C-5	노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지도하기 어려움

3. 시김새

시김새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 A그룹은 시김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시김새를 특징을 살려 가르칠 수 있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범창을 들려줄 수가 없다는 의견과 자신있게 지도하거나 재미있게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시김새 실기 능력이 우수한 교사의 경우, 시김새를 재미있게 지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교사는 시김새를 자신있게 지도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A그룹의 교사들은 시김새를 지도하는데는 실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그룹 역시 시김새를 이해하고 있어서 잘 가르치고 있다는 의견과 실기 능력이 없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김새 지도 시 주로 전문가 범창을 활용한다는 의견과 시김새 지도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부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C그룹도 시김새의 실기에 대하여 주로 답변하였는데, 대부분 시김새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으나 실기가 부족하여 지도하기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시김새 실기 능력의 부족으로 시김새 지도가 어렵다고 답하고 있어서 교사들은 시김새 관련 교사의 능력으로 실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김새 지도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시김새 범창이 되지 않아서 지도가 어렵다거나, 전문가 창을 들려준다는 답변으로 볼 때, 시김새 지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도 방법으로 시범창을 들려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김새 이해 수준

구 분		답 변
A	A-1	시김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지도를 잘 할 수 있음
	A-2	시김새의 종류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으나, 범창 능력 부족으로 전문가의 범창 자료를 주로 활용함
	A-3	시김새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며 맥락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시김새를 가르칠 수 있으나,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모범창을 보여줄 수 는 없음
	A-4	시김새에 대한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있게 지도할 수 없음
	A-5	시김새 실기 능력이 우수하여,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음
B	B-1	예전에 연수를 받은 것이 있어서 잘 지도하고 있음
	B-2	시김새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서 잘 지도하고 있는 편임
	B-3	이해는 하고 있으나 시범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B-4	시김새 지도 시 주로 전문가 범창을 따라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음. 지도 단계나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었으면 함
	B-5	시김새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C	C-1	실기가 부족하여 가르치기 쉽지 않음
	C-2	시김새를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는 하나 능숙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여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C-3	실기가 부족하여 지도하기 어려움
	C-4	지도법에 따라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기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음
	C-5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잘하지 못함

4. 메기고 받는 소리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A그룹의 교사들은 메기고 받는 소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메기고 받는 학습 활동 시 흥을 돋을 수 있어서 가창활동에 주로 활용한다고 답하였다. 일부 교사는 메기고 받는 소리가 자연스러운 가창 방식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따로 지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B그룹 역시 메기고 받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학습 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메기고 받기는 자연스러운 가창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C그룹 역시 메기고 받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메기고 받기 개념 이해를 잘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메기고 받기 이해 수준

구 분		답 변
A	A-1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고 있고 재미있게 지도하고 있음
	A-2	메기고 받는 소리를 이해하고 흥을 살려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함
	A-3	메기고 받는 소리를 따로 지도하지 않아도, 노래부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에 적용하고 있음
	A-4	메기고 받는 활동 시 흥을 돋을 수 있어서, 가창활동 시 주로 활용하는 교육 방법임
	A-5	메기고 받는 소리를 이해하며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음
B	B-1	메기고 받는 소리는 노래 부를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특별히 지도하지 않아도 잘 됨
	B-2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서 잘 지도함
	B-3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잘 지도하고 있음
	B-4	가창 활동의 자연스러운 한 형태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수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B-5	이해하고 있으며 잘 지도하고 있음
C	C-1	학생들이 서로 메기고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음
	C-2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
	C-3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의 차이점을 알고 지도할 수는 있으나 직접 메기는 부분을 변형하여 지도하는 활동을 잘 되지 않음
	C-4	지도법에 따라 지도를 하고 있음
	C-5	노래의 흥을 살리는 수준으로 학생들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5. 한배

한배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그룹의 경우 1인의 교사만이 한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한배를 변화시키며 지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교사들은 한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한배를 빠르기와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육과정에 한배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강한 비판도 있었으며, 지도가 어려워서 국악곡 감상 시 감상관점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B그룹 역시 한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빠르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한배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교사는 한배의 개념을 실기 부

죽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한배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다. C그룹도 한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교사는 빠르기와 동일개념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장단의 빠르기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이 교사들이 한배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배의 지도는 물론 한배의 개념이 음악 활동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인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한배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능력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도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답하여 한배의 개념이나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배 이해 수준

구 분		답 변
A	A-1	한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한배를 변화시키며 지도할 수 있음
	A-2	한배의 구체적인 적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도가 어려움. 국악곡 감상 시 감상관점으로 지도하고 있음
	A-3	한배가 빠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음
	A-4	동료교사가 한배의 개념이 무엇인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었음. 학생들에게도 빠르기라고 이해시키고 있음
	A-5	한배를 구체화할 수 없어서,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 교육과정에 한배의 의미도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B	B-1	한배가 무엇인지 모름
	B-2	한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실기가 부족하여 가르치기 쉽지 않음
	B-3	한배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몰라 빠르기의 의미로 지도하고 있음
	B-4	한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
	B-5	한배와 빠르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
C	C-1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
	C-2	잘 모름
	C-3	장단의 빠르기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여 지도가 어려움
	C-4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빠르기로 가르치고 있음
	C-5	장단의 빠르기를 쉽게 바꾸기 어려움

6. 국악교육을 위한 제언

국악 개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악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토론했었다. 성공적인 국악교육을 위해서 A그룹은 국가적 차원에

서의 지원과 강화, 그리고 교사 연수 강화와 같은 국악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국악 내용의 강화 및 다양한 국악교육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악제재곡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B그룹의 교사들은 대부분의 국악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국악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악교육 내용을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추어 쉽게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국악 개념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C그룹의 교사들 역시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교사 연수 등의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악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쉽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표 8> 국악교육을 위한 제안

구 분		답 변
A	A-1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악교육 강화 필요
	A-2	음악과 교과서에서 국악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음
	A-3	국악을 보다 쉽게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국악 교육 방법 개발 필요
	A-4	교사 연수 강화
	A-5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현대 음악과 조화로운 국악제재곡 개발 필요
B	B-1	보다 쉽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법 개발 필요
	B-2	국악 내용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 있음. 너무 어려움
	B-3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연구 필요
	B-4	너무 어렵게 느껴짐.
	B-5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간보, 한배 같은 전통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음악의 개념을 서양 음악과 통합할 필요 있음.
C	C-1	제재곡도 어렵고, 장단 연주도 어려움. 대안이 필요함
	C-2	쉽게 지도할 수 있었으면 함
	C-3	응답 없었음
	C-4	응답 없었음
	C-5	응답없었음

I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국악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하여 국악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악 내용의 이해 정도를 FGI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FGI 내용 분석을 통해 얻어낸 국악내용에 대한 교사의 이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장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장단 지도를 잘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장단 지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을 실기 능력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장단 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구를 잘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밖의 장단의 세, 장단꼴과 같은 개념 이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국악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장단지도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서양 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국악이나 서양음악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보다도 장단 지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국악에 전문성이 높은 교사들은 말붙임새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학습 상황과 연계하지 못하였으며, 서양음악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은 말붙임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념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말붙임새의 지도 전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시김새 실기 능력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시김새 실기 능력이 없어서 시김새 지도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김새 지도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단순히 범창을 들려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메기고 받기 지도는 개념을 잘 알고, 이를 수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비교적 교실에서 쉽게 접근하며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교사들은 한배의 개념을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빠르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빠르기의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었다. 한배 관련 학습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한배에 대한 개념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한배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학교 현장에 구체적 개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국악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사들은 행정적 지원 등의 방법도 필요하지만, 국악을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선정 및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국악을 잘 지도하려면 먼저 국악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악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배’와 같이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악 개념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장단’과 같이 한 개념 속에 많은 개념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분석적이며 구체적인 사례와 연계된 개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실기 능력을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다소 실기가 부족하여도 국악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교사의 교육내용 이해 수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김새를 범창으로 들려주거나 장단 연주를 능숙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실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교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는 보통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수·학습의 전문가인 교사가 실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교사의 교수 능력을 재편할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셋째,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교과서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심리나 행동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 내용은 학습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흥미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교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 국악을 보다 쉽게 학습 할 수 있도록 국악 내용을 구성하여 교사에게는 자신감을 주며, 학생들은 쉽게 국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악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전통의 계승과 현대의 변화라는 두 축 사이에서 국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 없이, 그리고 부족한 실기 능력을 인지하면서 자신감 없는 태도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 국악교육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 김성연·한기순 (2011). “영재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교사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8, 299-328.
- 김의석 (1993). “교사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산업정보대학, 7, 58-70.
- 김희숙 (2009). 초등학교 음악과 국악내용의 적합성 분석 준거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숙 (2010).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초등교사의 PCK 연구”. 음악교육연구, 39, 77-100.
- 엄우용·김경철 (2006). “초등교실수업과정에서 ICT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요인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 5-22.
- 이경언·최승현 (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PCK)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혜구 (1991). “장단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19, 11-33.
- 전인평 (2005). 한국음악 장단의 역사와 논리. 중앙대학교출판부.
- Brady, L. (1992). Curriculum envelopment(4th ed.). New York: Prentice Hall.
- Fullan, M. (2001).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Print, M. (1988). Curriculum development and design. 강현석 외, (2006).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 서울 : 교육과학사.

ABSTRACT

Analysis of the Suitability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the Music Curriculum

-The Reality of Teachers'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Kim, Hee-Suk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ality of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reference to this, it is applying its outcomes into the curriculum's content as well as educational situations such as teachers' training. Results from this analysis found a higher understanding of *Mal-Buchimsae* and *Call and Response*. This shows a higher competence when teaching *Mal-Buchimsae* and *Call and Response*. In contrast, most teachers are lacking practical ability for *Jungton* and *Sigimsae*, as they have a low level understanding of these concepts. Most teachers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Hanbae* and have a lack of knowledge for the teaching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ers' lack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e study also highlights a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when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This study claims that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sed to prevent difficult and abstract concept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lso, the curriculum needs to discuss how to teach easily as well as integrate accessible terms for teaching and learning.

key words: Music Curriculum,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Analysis of the Suitability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0월 22일(11월 4일), 게재 확정일: 11월 15일